

민족 최대 명절 추석=가족 최대 '여행절'

이씨는(아·48·광주시 서구)씨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생전 처음으로 차레를 지내지 않고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매년 꾸준히 차레상을 차려온 이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친척들 방문이 감소했고 추석연휴 기간이 6일로 길어져 모일 수 있는 가족끼리 한 데 모여 신안군의 한 가족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씨는 "집안 어른들도 점점 차레를 지내지 않게 되다보니 무작정 쉬는 것 보다는 가족여행이라도 계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단체 가족여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매년 명절 연휴기간 대가족이 함께 국내여행을 떠났던 서대훈(29·곡성읍)씨 가족은 올해 추석 첫날인 28일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가 차레상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10여 년전부터 장남인 서씨의 아버지가 간단히 차레만 지내고 가족 여행을 하는 것으로 명절을 보내왔다. 서씨는 올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처음으로 인기여행지인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을 방문하는 3박 5일 일정으로 17명 대가족의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그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명절연휴 기간 뽕뽕이 흠어진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명절연휴동안 모두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오히려 가족끼리 더 단합이 되고 좋은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추석 연휴 '최장 12일' 가능해져 간소한 차례 지내고 국내로 해외로 광주·전남 명절 여행 전년 대비 2배 전남 리조트 등 숙박시설 예약 폭차

올해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에 여행을 선택하는 지역민이 늘고 있다. 10일 광주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대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해외·국내여행 수요가 200%가량 상승했다. 지난 6월말부터 추석 연휴기간에 베트남의 다낭, 나트

랑과 라오스 등지로 가려는 여행수요가 급증했다. 추석연휴 동남아 여행 항공편은 지난 7월 말에 예약이 꽉 찼고, 제주·울릉·강원도로 향하는 여행객도 지역별로 200~300%가량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여행수요 급증의 원인을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올해 최소 6일, 최대 12일의 장기간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유명 리조트, 콘도 등 숙박시설도 이미 추석연휴 기간 예약이 가득 찼다.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지난 8월 초부터 추석연휴 이용객 예약을 받기 시작해 일주일만에 콘도 128실, 호텔 137실 예약이 만료됐다. 보성 다비치 콘도 역시 추석 한 달 전에 예약이 종료됐다. 콘도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예약문의가 더 많아 추석을 한 달 앞두고 80%가 예약이 모두 나갔다"며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큰방(33평)은 8월 초 예약만료됐고, 작은방(18평)도 8월 말까지는 꽉 찼다"고 말했다.

진도 솔비치도 지난 7월 중순에 추석연휴기간 562개의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 솔비치 관계자는 "추석 연휴 투숙 예약객 중 과반수 이상은 가족단위"라며 "2달 전에 만실됐는데 지금도 하루 평균 20건은 추석연휴 예약 문의전화로 걸려온다"고 했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차례상을 차리는 등의 격식에 맞춰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점점 간소화되다보니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유대감을 쌓는 방법 중 하나로 명절 연휴기간동안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이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대다수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일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찾고 싶은 욕구가 커져 명절 연휴기간동안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 1일부터 2일간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황금연휴기간 여행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715명(71.5%)이 '여행을 떠난다'고 응답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빛고을드론페스티벌 성료 '빛고을드론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9일 국립광주과학관 상공에 1000여대의 드론이 광주를 알리는 갖가지 문양 등을 하늘에 수놓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 일대 악취 민원 느는데 '대책이 없다'

7~9월 집중...육류 도축장 추정에 북구청 "기준치 안넘어 손 못써"

광주시 북구 운암·매곡·용봉동 일대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구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지역 주민이 제기한 악취 민원은 총 140건에 달한다. 이중 7~9월에 전체 90%인 12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밤만 되면 이상한 쓰레기 냄새가 난다', '창문만 열면 퇴비 냄새가 들어와서 창문을 못 열겠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악취의 원인을 한 육류 도축업체로 추정

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결과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북구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기중악취검사 기준치 20(공기회석횟수)을 넘어야 하는데 최대 수치는 14정도로 나타났고 냄새가 심하게 나타나는 장소의 배출구 검사 역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북구의 요청에 의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북구청

에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체 서명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 '정체모를 역한 냄새가 바람에 섞여서 동네에 풍긴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검사 기준치를 넘기 위해선 악취 차단막 씌는 생선을 방지하는 수준의 악취가 나아한다"면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축업체 측은 "한달 전 폐기물 처리 기계가 고장 나면서 냄새가 심해진 것 같다"며 "기계 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악취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

"지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검찰될 것"

홍승욱 광주고검장 취임

홍승욱(50·사법연수원 28기·사진) 제 51대 신임 광주고검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홍 고검장은 8일 오전 광주검찰 9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에서 "지역민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고검장은 "검찰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며 겸손한 자세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불변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홍 고검장은 "내년에는 민주주의 꽃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사전 선거운동,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엄단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 동해 출신인 홍 고검장은 서울 오금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철도노조 호남본부, 14일부터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14일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광주승정역 광장에서 노조원 1000여 명이 모여 총파업출정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호남선SRT 축소운영 철회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열차(SRT) 노선 확대 철회 ▲철도민영화 중단 ▲수서행 KTX투입 및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부가 노

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2차 파업하겠다고 경고해 추석 연휴 교통 혼잡도 예상되고 있다. 노조측은 열차 운행 필수 인력을 제외한 1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업기간 열차 내부와 철도교통관제센터에는 법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인력이 배치되지만 매표 안내와 수송 업무의 경우 담당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일부 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